

K9·천무 발판 우주방산 키운다

AI·무인화로 미래 정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와 항공엔진으로 대표되는 제조 경쟁력을 앞세워 우주·AI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병력 감소와 전장 환경 변화로 무인·자율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AI 전환과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정책이 맞물리면서 방산업계의 성장 속도 지상 전력에서 항공우주와 무인체계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안정적인 수주잔고와 계열사 간 방산 역량 결합을 바탕으로 향후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항공엔진서 지상방산까지...M&A로 방산 축 재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삼성정밀 공업으로 출범한 뒤 항공엔진 사업을 중심으로 제조 기반을 쌓아왔다. 1979년 가스 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전투기와 헬기 엔진의 생산·정비를 맡으며 국내 항공엔진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업의 무게중심은 한화그룹 편입 이후 방산으로 넓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한 데 이어 2023년 4월 ㈜한화 방산부문까지 편입하며 지상 방산 역량을 한데 묶었다. 2023년 5월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편입되면서 그룹 차원의 방산 포트폴리오는 해양 분야까지 확대됐고 2024년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인적분할을 거쳐 방산·항공우주 중심의 사업 구조가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매출 26.6조, 영업이익 3조 노르웨이에 1.3조 규모 천무 수출 올해 지상방산 수주잔고 39.7조 무인차량,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육·해·공 통합솔루션으로 확장

이 같은 재편은 실적으로도 확인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매출 11조 2462억원, 영업이익 1조 7247억원에서 2025년 매출 26조 6078억원, 영업이익 3조 345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37%, 영업이익은 약 75% 증가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상방산 부문의 성장과 항공우주 부문 흑자 전환, 한화오션의 연간 실적 연결 효과가 맞물리며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수주 기반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계약 등이 반영되면서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가 약 39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5년 말 37조 2000억원 수준이던 잔고가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하며 중장기 실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K9·천무 수출 기반으로 AI·무인화 투자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중심으로 한 지상방산 수출 경쟁력이 있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화력체계 수요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무인체계와 AI 방산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전장 환경 변화도 무인화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 병력 감소와 인명 피해 최소화 요구가 커지면서 정찰, 수송, 폭발물 탐지,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체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화력체계가 전장의 타격 수단이었다면, 무인차량과 로봇은 병력을 대신해 위험 지역에 투입되는 미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인차량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미국 해외비교시험을 거친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을 비롯해 차세대 무인차량 '그루트',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28년까지 소형·중형·대형

'스페이스허브' 중심 우주 사업 누리호 제작·조립 총괄 관리 역할 KAI 지분 8.67%... 2대 주주 굳히기 경영 참여 변수, 재무 부담은 과제

급 차분형과 궤도형 무인차량 제품군을 확보해 지상 무인체계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무인화 전략은 계열사 간 협업과도 맞물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무인 체계에 한화시스템의 위성통신·감시정찰 기술, 한화오션의 무인 함정 기술을 결합하면 육상과 해상, 공중 전력을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단품 무기 공급을 넘어 AI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장을 운용하는 체계 사업을 겨냥하는 셈이다.

◆ 우주·KAI로 항공우주 포트폴리오 강화 무인화와 함께 우주 사업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방산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한화그룹은 '스페이스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체와 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 사업 밸

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가운데 발사체 사업을 맡고 있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반복 발사와 정의 제작·조립과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핵심 기업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 확장은 KAI 지분 확대를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한국항공우주 보유 주식을 기존 989만 6023주에서 1093만 623주로 늘리며 지분율을 8.67%까지 높였다. 한화에어로의 특별관계자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각각 1.53%, 1.01%를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의 합산 KAI 지분율은 11.21%다.

이번 지분 확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1500억원의 취득 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달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달 16일 KAI 지분율을 9.04%로 끌어올리며 국민연금을 제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 추가 매수로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 지분율이 5%를 넘어선 뒤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상태다.

KAI는 FA-50, KF-21 등 완제기 개발·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핵심 항공우주 기업이다. 한화 입장에서 지상전력과 해상전력, 위성·전자체계에 항공 플랫폼까지 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K9·천무 중심의 지상방산, 한화오션의 함정 사업, 한화시스템의 위성·전자전 역량에 KAI의 항공기 개발 역량이 더해질 경우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 구축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경영 참여 확대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정부의 KAI 지분 매각 여부와 민영화 방향, KAI 노조 반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인체계와 우주 사업도 본격적인 수익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규모 선행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관리 역시 과제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지분 확대는 단순한 재무 투자보다 항공 방산과 우주 사업까지 사업 축을 넓히려는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정부의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희 기자 wkh@metrosool.co.kr

